

대한변협, 사시촉구 국민 5,345명 서명 국회전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서명은 전국 각 지역 고시생과 변호사들이 취합해 변협에 전달한 것으로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진주 등 전국 10개 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법시험(사시) 존치 활동이 지난 지난 11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 105명 전원의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 발의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된 데 이어, 이제는 일반 국민들까지 폭넓게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시존치 활동이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제는 국민들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한변협의 사법시험 존치 활동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국입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법시험 존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0.1%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